

7

항상규선생 묘

독립운동유적지



! 관련정보 Information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경남 밀양시 부북면 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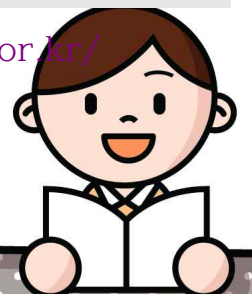
▶ 인물정보

항상규 선생(1891.4.19.~1931.9.2)은 경술국치 후 일합사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한광복회 참여하여 군자금 모금과 무기 구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1918년 일합사 조직이 드러나자 만주로 이주한 그는 길림성에서 의열단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김대지, 손일민과 함께 세운 후 조카이자 제자인 약산 김원봉을 의백으로 하는 의열단을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19년 2월에 공포된 대한독립선언 서명자 39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에는 재정위원으로 선임되어 18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전달했다. 의열단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인 '밀양폭탄사건'에 연루되어 7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루었으며 출옥 이후에는 신간회 밀양지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7월 신간회 중앙상임위원회 서기장을 맡아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당시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기여하였다.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 조직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던 백민은 지병으로 1931년 9월 2일 영면 별세하셨다. 그의 장례는 안병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찾아온 조문객이 10만이 넘었다고 한다.

「출처: 2017. 밀양교육청 밀양독립운동사 아카데미 연수자료」

▶ 관련링크(누리집)

■ <http://www.miryang815.or.kr/>



🔍 소개 Introduction

일제 강점기에 노동야학원과 여자야학원을 설립하여 교육한 교육자로서, 의열단 등의 무장투쟁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국어학자로서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항상규 선생의 묘소이다.

📍 위치 Location

